

사설(社說)

도다 선생님 탄생 123년 제자의 승리가 역사를 연다

2023년 2월 11일

오늘 2월 11일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선생님 탄생 123주년.

전시(戰時) 중 군부정부(軍部政府)의 탄압으로 인한 2년간의 투옥을 견디고 묘법유포(妙法流布)의 대원(大願)에 홀로 섰던 도다(戶田) 선생님. 광포(廣布)의 미래를 전망하며 괴멸(壞滅) 상태에 있던 학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눈앞의 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학회의 원점은 도다 선생님의, 어디까지나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진지한 개인지도(個人指導)에 있다.

전후(戰後)의 혼란기. 누구나 고뇌에 허덕이고 있었다. 선생님은 어떤 고민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일로 동고(同苦)했다. 전신전령(全身全靈)으로 지도(指導)한 뒤에는 어깨로 숨을 쉴 정도였다고 한다.

“나는 아내도 잃었다. 딸도 잃었다. 그리고 인생의 고생을 철저하게 끝까지 맛보았다. 그래서 회장이 된 것이다.” 고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알 수 있다. 어떻게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지도를 거듭한 도다 선생님. 이윽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자각하고, 벼는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격려 받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존재’로 바뀌어 갔다. 이 인간혁명(人間革命)의 연쇄 이외에 광선유포(廣宣流布)는 진행되지 않는다.

도다 선생님의 ‘분신’으로서 싸워온 것이, 직제자 이케다(池田) 선생님이었다. 1952년 2월의 ‘2월투쟁’. 스승의 탄생월을 미증유의 확대로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 24세의 이케다 청년은 누구보다 고민하고, 누구보다 기원하고, 누구보다 벼를 격려했다. 이 필사(必死)의 한 사람의 열정이 도다 선생님의 원업(願業)인 75만 세대(世帶) 달성을 향한 돌파구(突破口)를 연 것이다.

이케다 선생님은 지난해 도다 선생님의 고향 홋카이도(北海道) 벳에게 「어의구전(御義口傳)」의 일절을 선사했다. “사자후(師子吼)의 ‘사(師)’란 스승이 수여하는(주는) 묘법(妙法), ‘자(子)’란 제자가 받는 묘법이며, ‘후(吼)’란 사제가 함께 부르는 음성(音聲)을 말한다.”(어서신판1043·전집748, 통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기원하고 싸우고 함께 승리한다. 우리는 이 사제공전(師弟共戰)으로 나아간다.

도다 선생님이 생전에 해외를 방문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각지에 도다 선생님의 이름을 딴 공원과 거리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전 세계 식자들로부터 평화와 인도에 기여한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정의(正義)를 끝까지 외치고 선양(宣揚)해 ‘세계의 도다 선생님’으로 해 드렸습니다.”

사제(師弟)는 제자(弟子)가 어떻게 싸우느냐로 결정된다. 스승의 위대함을, 스승의 정의를 선양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밖에 없다. 제자의 승리로 새로운 사제공전(師弟共戰)의 역사를 열어가자.